

12/1 (에 7:1-10)

우제윤

제목: 함께 갑시다

1) 하나라는 의식

2) 왕의 노가 누구에게로 갔는가?

한줄요약: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되어 함께 갑시다.

참고: WBC주석, HOW주석, 메인아이디어주석

오늘 유다사람들에게는 역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만의 위세가 왕 다음으로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면 엎드려 절하게 하는 것이었죠. 모든사람이 하만에게 절하고 있을 때에 모르드개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노가 올랐던 하만은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기 위한 계락을 짚고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모르드개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지금 위기를 가져온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면 참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알 수 없는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고 기독교만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르드개도 믿음을 지키다가 위기에 처한 것이죠.

악인의 하만의 계락을 저지하기 위해서 온 유다사람들이 힘을 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합심하여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에스더 여왕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위기를 돌파하려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라는 의식”입니다. 민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분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라는 의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을 때에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힘들어 할 때, 가족이 힘들 때, 내 아이가 힘들 때. 얼마나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려고 합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도 각박해지다보니 나의 이웃에게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이웃도 힘들어할 때 그 사람에게 콩 한쪽이라도 나눠주는 것이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라를 의식”을 회복하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여 왕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왕이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에게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다 얘기하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그때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니”라고 말하며 3-4절에서 단어, 문장들을 세심히 조절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이미 하만에게 뇌물을 받은 상태였고 하만에게 명하였던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 피해받을 것을 미리 염두하고 왕의 불편을 덜어주고 왕에게 누를 끼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담아두며 왕이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노하여 나갔다고 하여 무슨 이유로 나갔는지는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왕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하만은 에스더의 갑작스런 얘기로 인해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만에게는 왕이 노하여 나간 모습은 왕이 이미 하만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정을 내리고 노하여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이 나가자마자 다음으로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 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 왕이 그 상황을 이용하여 하만에게 자신의 잘못도 넘겨버려 일을 끝내려고 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개에 대한 악의를 품고 조롱하려고 기다란 나무에 모르드개가 아닌 본인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에스더와의 약속을 지키며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지 악인의 흥하는 것을 보며 암담함을 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끝은 결국 패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옆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이웃에게 함께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며 힘들면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며 이 끝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실테니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갈 수 있게 도와주며 함께 가는 것이 “하나인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12/8 (요 1:1-14)

우제윤

제목: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1) 깨닫지 못한 삶

2) 진리가 충만한 삶

한줄요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삽시다.

참고: WBC주석, PNTC주석, 메인아이디어주석

설교를 듣다보면 참으로 지루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매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귀를 닫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새로운 이야기 흥미가 돋는 이야기 위로가 되는 것에 더 치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올바른 신자의 모습인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선악과라는 율법이 있었고 그것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는 죄를 짓었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멍에에 매여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의 종노릇만 하고 있던 처지가 바로 인간이 처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한복음은 시작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이야기 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의합니다. 신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신으로서의 수치였지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이 그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려한 인간은 무지로 인해 빛이 어둠을 비추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말씀하신 이 선포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ですよ. 그리고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기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 1:1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본다고 합니다. 이 끝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이자 위로가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택함받은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가 넘칩니다. 세상의 흥함과 부유와 성공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신분도 바뀌고 생명도 얻고 새로운 삶 또한 얻었습니다. 검은 안개가 우리의 눈을 계속 가리워 진리를 보지 못하게 살게 하던 그 검은 안개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보며 살게 하신 은혜가 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리를 보며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15 (요 6:9-14)

우제윤

제목: 나의 소망은 하늘에

1) 떡과 물고기를 보다

2)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한줄요약: 우리의 중심소망이 하늘소망이 되자

참고: WBC주석, PNTC주석, 메인아이디어주석

예전에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마시는 일을 평생 해결해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텐데 왜 그러지 않으시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이 내 평생에 먹을 걱정을 없애주신다면 거의 전인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생각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는지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먹일 끼니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누어주었는데 음식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기뻐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수가 5천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성인남자만 세었던 수이므로 추정으로는 약 7천-1만명의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오병이어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음식들을 모으니 12바구니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14절에서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음식에 관심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구속사적 부분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적인 음식에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먹는 것이 해결된다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이 자신들의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 온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소망은 아직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아버지께 바라는 것이 하늘소망이 아니라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풀리게 해달라고, 끼니 걱정없이 살게 해달라고, 성공한 삶 등 주님에게 바라는 것이 전부 땅의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12/22 (요 16:25-33)

우제윤

제목: 완성된 평안

1) 직접적인 믿음

2)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줄요약:

참고: WBC주석, PNTC주석, 메인아이디어주석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니까? 25-30절은 사도행전의 성령강림을 염두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세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가 아니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김으로 이제는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비유가 필요 없어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라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특권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는 믿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의 조건이 충족된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연합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제자들이 뭐라고 하나면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지금야야 …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라고 고백하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시대에 살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환난을 당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환난과 고난으로 끝이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일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환난과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를 완성 시킨의 선포가 “세상을 이겼노라”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라고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